

"그러나 결국 여행 특유의 즐거움이란 도중에 내릴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과 도착 사이의 차이를 뒀 수 있는 한 알 아차릴 수 없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러한 차이를 가능한 한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유럽사회에 배회자가 등장하던 시기는 근대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였다. 도시를 향한 시적 응시를 의미 하던 배회는 단순히 걷기의 즐거움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피였으며, 모태로의 회귀와 다르지 않았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몽상은 비현실이라기보다 탈현실적인 심리적 접근이 강했던 것을 떠올려보 자. 도시화와 상업화가 만든 공적영역의 확립은 도시에서 일상과 삶의 기슭을 지워버렸다. 초현실주의자 들은 파리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찾아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을 선호했다고 한다. 배회는 또 다른 의미로 시적 생존의 행위였다. 그리고 벤야민에 의해 근대의 신인류인 배회자가 등장한다. 가끔은 배회자는 개 념만 존재하는 벤야민의 순수한 발명품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혹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적응하 지 못하는 주변인에 대한 은유일지도 모른다. 배회자는 도시라는 익명의 장소, 군중이라 불리는 불특정 다수 속에 살면서 동시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대의 관찰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은 거대한 사건, 시대의 이념을 대변하는 장소를 성화시키는 대신 개인의 삶은 도시의 이야기 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지만 배회자는 이 도시 안에 살면서 도시를 탐험하고 거대한 역사의 고고학이 아닌 가려진 기억을 되살리고 역사화된 과거와 다른 사적이고 일상적 인 삶의 흔적을 탐구하는 주체적인 고고학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주체적 걷기: 장소의 발견

무엇보다 이주영에게 타인, 이질적인 문화를 만나는 행위와 과정은 작업의 원동이다. 그녀는 동시다발적 으로 다양한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Scratching the surface diving in deep /part2> (2008)는 노르웨이의 레지던시 경험에서 비롯된 프로젝트로 과거부터 문명의 교차로이자 한 국의 근대화의 원점이었던 인천에서 진행되었다. 영국인 DJ인 유진 블레이크의 사사를 받은 네팔 출신 의 이주노동자 미닛 모탄을 일일DJ로 변신시키는 이 프로젝트에서 이주영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빚어낸 이주와 노동의 텍스트를 문화적 문맥으로 전복시키면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예 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 속의 위계질서와 자본논리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격적으로 걷기 작업이 실행된 것은 <패밀리마트 소셜(Family Mart Social)1>(2009)로부터 촉발되었다. 이주영 외에도 권오현, 클라우드나 페스타나가 참여하면서 진행 된 이 프로젝트는 24시간 편의점인 패밀리마트가 동네 공동체의 사랑방 기능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매 개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강 북안에 위치한 양화진을 출발하여 주변의 패밀리마트를 이정표 또는 정거장 삼아 합 정동과 홍대 인근을 탐험하는 도시탐사를 빙자한 '걷고 마시고 수다 떨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흥 미로운 점은 양화진의 장소성에 있다. 양화진은 조선시대 인천을 연결하는 나루터였으며 군사적으로도 18세기 말 한강진·노량진·동작진·송파진과 함께 한양의 오진(五鎭)중 하나로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이후 병오박해(1849년)에 의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참수하는 사건이 벌 어진다. 100년 후에 절두산 순교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었다.

<패밀리마트 소셜1>은 현대의 산물이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물이 혼재한 가장 일상적이면서 전위에 서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침범인 24시간 편의점이 세계화의 한 단면이자 부정할 수 없는 서울이 란 대도시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다. 패밀리마트와 양화진은 현대서울의 장소에 대한 겹을 응시하게 해 준다. 마치 벤야민이 파리의 배회자가 근대의 신인류임을 주장할 때, 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가려진 과거가 놀라운 메아리가 되어 울린다는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주영이 연결시킨 두 장소는 근대화의 지표인 역사적 장소인 양화진과 기억이 부재한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상점의 이면을 교차시키면서 긴 역사를 가진 서울이란 영토의 겹에 물음을 던진다. 만약 영국식민지 역사의 끝을 기다 리는 홍콩이란 장소에 대한 이중적인 배경으로 등장한 왕가위의 영화 <중경삼림> 속 편의점은 만남과 이별에 대처하는 현대인의 '쿨'한 정서를 보여주면서 시대를 변화를 비유한 알레고리였다면, 벤야민은 파 리의 과거를 "두 겹으로 이루어진 바닥을 비추는 가스등 불빛"이라며 근대화된 파리를 묘사하면서 바닥 밑에 묻힌 역사 밖의 과거에 대한 알레고리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주영의 인천 걷기가 가려진 인천이 란 시공간의 겹을 보여줄 수 있을까?

두 겹의 바닥: 동인천역부터 인천역까지

인천의 걷기 프로젝트는 동인천역에서 시작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구 시가지의 전형적인 풍경으로 남겨져 있다. 80년대의 도심지에서 풍기는 노스탈지아와 익명의 높지 않은 건물들이 오밀조밀 조합된 동인천역 주변에서 과거 배다리는 문화적 지표로 헌책방과 식도락 지역으로 상당히 알려진 장소였다. 건축이나 도시문화연구를 하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배다리 기행은 꽤 알려진 답사지이기도 하다. 사실 블로그와 같은 개인미디어를 통해 이 장소는 나름의 유명세를 갖고 있으며, 내가 이주영과 함께 산책한 경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걷기와 도시를 탐사하는 행위 그 자체는 그날따라 유난히 을씨년스러웠던 날씨 덕분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겹의 시간을 밟고 지나가는 인상을 받았다. 동인천 주변을 지나 자유공원으로 향하면서 개화기의 인천을 상상할 수 있었다. 장소의 진정성은 모방할 수 없는 유일성으로부터 발생한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플라타너스의 너른 품과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이는 적산가옥들, 산등성이 틈으로 형성된 좁은 골목들, 맥아더 장군상 앞에서 비로소 들리는 기적소리와 연안부두의 정경은 적당한 이국적인 자태로 다가왔다. 자유공원을 너머서자마자 펼쳐지는 차이나타운은 도시재생을 위해 급하게 개발을 한 흔적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살고 있는 화교들의 삶이 있기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이방인 마을의 기운 또한 공존하고 있었다. 다소 엉성한 삼국지 벽화가 그려진 화교학교를 지나니 과거 청일 간의 영역다툼의 흔적이 계단을 중심으로 그대로 남겨진 조계지가 등장한다. 이 사이 계단을 내려오니 창고를 개조한 아트플랫폼 역시 언캐니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낮은 구릉을 몇 번 오르내리다 보니 벌써 목적지다. 이주영의 걷기는 개화기와 근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감성적인 산책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경로에 따라 산책의 느낌은 사뭇 달라지겠지만, 현재 인천이 겪고 있는 개발의 현장을 비껴가면서 도착한 아트플랫폼 이란 문화적 장소가 사실은 이 개발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비장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벤야민 자신이자 그가 만든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는 배회자가 걸었던 두 겹의 바닥을 이주영과 내가 걸었던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산업화 시대의 자취를 밟았고, 배다리 근처의 헌책방에서 문명의 섞임을 만났다. (나는 헌책방에서 이탈리아 칼비노의 "If on a winter's night a traveler"와 사르트르의 불어판 "구토"를 단돈 6000원에 구입했다. 이곳에선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심지어는 히브리어의 책까지도 진열되어있다.) 곧이어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홍예문과 맥아더 상을 지나 신인천개발의 논리 하에 재현된 허구화된 차이나타운을 여행자처럼 걸었으며 (여기에서 2000원이란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칭타오 맥주를 샀다) 개화기라는 시대적 지형도도 탐사할 수 있었다. 다소 감상적일 수 있겠지만, 기억의 흔적이자 동시에 생존을 위한 영토화를 동시에 관찰하는 걷기 과정은 작가가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일련의 미션(일회용 사진기를 이용한 기록과 지도 그리기와 길거리에 분필로 낙서남기기와 같은)을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을 통해 스스로 주체적인 걷기를 수행하면서 심리적 지형도를 그리게 된다.

이주영은 궁극적으로 매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예술가의 역할이 생산자가 아닌 문화적 매개자로, 개인의 일상과 그 경험을 잡지, 라디오, 인터넷 방송, 블로그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기록되고 소개되는 일련의 행보는 작업을 매개로 한 상호교환성에 있다. 침입과 저항, 수탈과 교환, 이질성과 동질성과 같은 대립항의 흔적과 기억의 공간으로서 인천에 집중된 최근의 작업은 계획되어졌다기보다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으로 연장되면서 새로운 영토를 찾아 떠나는 노마드로서 이주영은 이제 동아시아의 조계지, 요코하마와 상하이로 인천의 문화인류학적 궤적을 확장하고자 한다.